

#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나중민\*, 박세진\*\*, 이기중\*\*\*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행복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사회·심리적 환경의 행복감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의 7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긍정적인 사회·심리적 환경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환경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자신과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사회·심리적 환경, 행복감, 자아존중감

\* 나중민 (주저자, ems2002@gmail.com)

학위취득대학: 조지아 대학교

현직: 국민대학교

\*\* 박세진 (공동저자, sj0416@kookmin.ac.kr)

현직: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 이기중 (교신저자, rhee0408@kookmin.ac.kr)

학위취득대학: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현직: 국민대학교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것임

논문접수일: 2017년 4월 1일, 논문수정일: 2017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 2017년 5월 30일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5

#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chool Satisfaction on Happiness via Adolescents' Self-esteem

Ra, Jong-min, Park, Se-jin, Rhee, Ki-Jong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adolescents' soci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on their happiness via their self-esteem with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Results obtained from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ositive soci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affect their happiness positively. Furthermore, self-esteem has a positive influence on adolescents' happiness. Adolescents' soci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chool environment and school bonding where adolescents spend most of their time but show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cademic stress. Interesting finding is that students having a close relation with himself and/or herself had much higher levels of happiness than those who considering others.

**[Keywords]** *Self-esteem, Soci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Happiness*

## I. 서론

급격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동안 학교 내·외적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인지적 역량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국제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다다랐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학업성취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학생들의 행복감은 갈수록 약화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강영하 2012; 송정화 외 2012; 주재선 2007). 특히, 어린 시절에 느끼는 행복감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Yang 2008)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삶에 있어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을 내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한 연구(권세원·이애현·송인한 2012; 도종수 2011)와 아동청소년의 행복이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내면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류시영·장방훈 2012; 송정화 2011), 그리고 인간의 발달주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관계속에서의 경험은 청소년들의 개인의 내면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Baumgardner and Crothers 2009; Whaley and Wong 1997)들과 같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사회·정서적 요인들에 대한 개별적 선행연구들은 아주 많았으나 이들 변인들 사이에 인

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결과 분석을 통하여 잠재적으로는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돕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들의 느끼는 행복감은 청소년의 인지적·정의적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인지적·정의적·심동적을 조화롭게 하여 전인(全人)적 인간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상은 청소년들의 학업적 역량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느끼는 개인적 행복감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강영하 2012). 대한민국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쟁적이고 획일적인 학업에 몰두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좌절감, 긴장 등의 문제를 겪으며 점차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권세원·송인한 2011; 이현웅·곽윤정 2011).

인간의 발달주기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는 새로운 환경에서 인지적 능력과 적응력을 키워가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며 가정 밖의 학교, 또래관계, 학원 등의 사회관계속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7

한 사회관계에서의 경험은 자아존중감, 행복감을 느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umgardner and Crothers 2009; Myers and Diener 1995; Procidano 1992; Whaley and Wong 1997).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내면적 측면에서 현재 주어진 삶과 앞으로 펼쳐질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시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증대와 감소는 청소년들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가져오고 이러한 감정적 기복은 청소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anden 1994; Baumeister · Campbell · Krueger and Vohs 2003).

개인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적 태도, 좋아하는 정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내릴 수 있다(Rosenberg 1965). 특히, Maslow(1943)는 다른 사람 또는 스스로에게 사랑받거나 존경받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은 불가능하며 개인의 삶에 있어 개인의 내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Ciarrochi · Heaven and Davies(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적응 중 우울에 초점을 두었는데, 상대적으로 행복과 같은 영역에 소홀했음을 언급하면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인지적 발전측면 뿐만 아니라 감정적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행복감과의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DeNeve and Cooper 1998; Diener and Diener 1995; Dogan · Totan and Sapmaz 2013; Lyubomirsky and Lepper 2006) 자아존

중감은 행복감에 중요한 지표이며 정(+)적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조은상(2011)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들 중 심리적 안정영역의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류시영과 강방훈(2012)은 옥스퍼드 행복지수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연구결과 자아존중감, 특히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수준과 상관없이 좋은 결과(높은 성취도, 높은 행복감 등)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umeister et al. 2003). 김영춘(2012)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행복감을 높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자살 충동, 청소년비행, 자신감 결여 그리고 낮은 행복감 등과 같은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umeister et al. 2003). 더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가정의 행복,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개인적 포괄적인 성취, 정서적 지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Park et al. 2012). 이렇듯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행복에 대해서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려우나 행복이란 삶의 인지적이고 감정적 평가로 정의내릴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행복은 결혼, 건강, 직업

에 따른 행복으로 볼 수 있으며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은 행복의 감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Lyubomirsky(2001)는 심리적,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행복감은 우리 주위의 다양한 관계 형태 및 상황 속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므로 인간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행위를 기반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감정중의 최고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Yu and Lee 2013).

김승권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타인과의 관계나 자신의 다양한 경험에서의 긍정적인 감정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이 청소년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경험미숙과 덜 성숙한 인지적 발달)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어른들이 느끼는 행복감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안정된 직업, 사회적 지위, 결혼, 자녀 등 다양한 행태의 특성에서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과 어른들과의 행복감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청소년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복잡한 사회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Schultz · Izard and Bear 2004).

오랜 시간 학교에서 머무는 청소년은 학업활동인 교육적 활동과 또래집단 및 교사와의 상호관계인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표현한 바와 같이 학교는 학업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본적 목적과 동

시에 또래집단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경험 능력을 성장시키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 및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소년시기에 학교에서의 교육적, 사회적, 정서적 관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정미영, 문혁준(2007)은 긍정적인 또래집단과의 관계,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긍정적인 면에 따라 학교생활이 긍정적이라고 하였고, 또한 이 시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의 높은 영향력은 친구관계라고 밝히고 있다(송경아 2008).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 관련지어 볼 때, 청소년시기에 학교에서의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개인적 포괄적인 성취, 정서적 지원 등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힌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교육적, 사회적, 정서적 관계인 사회·심리적 요인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시기에는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의 경계가 매우 넓은데 이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부정적 경험은 친구들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방해를 하고 청소년의 외로움과 우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ngle · Erdley · Newman · Mason and Carpenter 2003). Csikszentmihalyi와 Hunter(2003)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사이의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최고조에 다다르고 혼자 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9

Diener와 Seligman(2002)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사회적 관계의 연관성을 밝힌 다음의 연구들(Demir · Ozdemir and Weitekamp 2007; Holder and Coleman 2007; Slee and Rigby 1993; Tkach and Lyubomirsky 2006; Young and Bradley 1998)은 청소년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밖의 다른 연구들(Demir et al. 2007; Holder and Coleman 2007; Tkach and Lyubomirsky 2006)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행복과 외향성과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강화된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Tkach와 Lyubomirsky (2006)의 연구에서는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친구와의 유대감, 그리고 타인을 도와주는 행위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DiTommaso와 Spinner (1993)은 사회 활동을 통해 즐거운 감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사회적 관계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다(Demir et al. 2007). 관련한 또 다른 연구인 Slee와 Rigby(1993)의 연구에 의하면 왕따와 같은 부정적 경험을 겪은 청소년들은 낮은 행복감을 보이고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내성적 성향의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덜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Young and Bradley 1998)의 결과는

사회적 단절이나 외로움은 행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관한 인과관계를 설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Baumeister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둘째, 학교생활 요인(학교생활, 학교유대감, 학업스트레스)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셋째, 학교생활 요인(학교생활, 학교유대감, 학업스트레스)등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한 사회·감성적 요인의 영향을 학년별로 비교·분석하여 학년(고1, 고2, 고3)에 따른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KWPS)에서 제공하는 7차년도 설문 조사에 응답한 521명의 고등학생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missing value)이 있으면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listwise deletion method)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96명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이중 고등학교 1학년이 173명(34.9%), 고등

학교 2학년이 165명(33.3%),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158명(31.9%)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행복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KWPS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중 주성분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과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40이상의 개별문항(Matsunaga 2010)을 선정하여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Cronbach's  $\alpha$ 를 측정하였다.

### 1) 학교생활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은 3가지 영역(학교생활, 학업스트레스, 학교유대감)을 알아보기 위해 19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저있다. 학교생활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다는 것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으면 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유대감은 Cavazos(1990)의 학교생활척도(school life scale)를 박현선(1998)이 수정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문항 중 2문항(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기를 죽인다,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데 선생님께 혼나는

<표 1>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문항	학교생활	학업 스트레스	학교 유대감
1	학교생활이 즐겁다	.51		
2	배우고 있는 대부분 과목을 좋아한다	.66		
3	선생님을 존경한다	.60		
4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62		
5	숙제는 꼬박꼬박 해가는 편이다	.70		
6	선생님 지시를 잘 따른다	.64		
7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8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 적이 있다			
9	허락 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			
10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80	
11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82	
12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1	
13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72	
14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			
15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한다			.46
16	선생님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칭찬해 주신다			
17	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기를 죽인다			.75
18	나는 학교가 안전하게 느껴진다			
19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데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다		.74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11

경우가 있다)은 부정문으로 되어있어 응답을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총점이 높다는 것은 청소년이 학교에 대하여 가진 유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인지한 학교생활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본의 적절성 결과 Kaiser-Meyer-Olkin(KMO)값이 .724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 확률이  $p < .01$ 으로 나타났다( $\chi^2_{171} = 2493.12$   $p < .01$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인지한 학교생활 척도는 단위행렬(identity matrix)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분석 결과 청소년이 인지한 학교생활은 3개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6개 문항(7, 8, 9, 14, 16, 18)은 요인부하량이 .40보다 작아 추후 분석에서 제외를 시켰다. 학교생활,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유대감의 고유값(Eigenvalue)은 1.39, 1.87, 1.18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alpha로 측정된 문항 간 내적일치도는 학교생활이 .74, 학업스트레스가 .81, 학교유대감이 .54로 나타나 학교유대감 요인에 대한 문항 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유대감의 신뢰도는 .54로 낮는데 이러한 결과는 Nunnally(1978:245)이 적

정한 신뢰도로 제시한 .70 보다 작지만 Schitt(1996)가 제시한 .50보다는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행복감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된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가 제시한 척도로 6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6문항 중 부정문항(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총점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Kaiser-Meyer-Olkin(KMO) 값이 .83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 확률이  $p < .01$  으로서 나타났다( $\chi^2_{15} = 1046.21$   $p = <.01$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인지한 행복감 척도는 단위행렬(identity matrix)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2>에 제시된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청소년의 행복감은 2개 하위요인(자신과의 행복감, 타인과의 행복감)으로 나타났다. 문항 6(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은 요인부하량이 .40보다 작아 추후 분석에서 제외

<표 2>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문항	자신과의 행복감	타인과의 행복감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56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64	
3	나는 삶에 만족한다	.62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91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49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를 시켰다.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값(Eigenvalue)은 1.68과 1.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선정된 5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행복감의 문항 간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으며 자신과의 행복감과 타인과의 행복감에 대한 문항 간 내적일치도는 각각 .79, .70으로 나타났다.

### 3)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1979)는 자아에 대한 구체적 측면보다는 일반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Baumeister et al. 2003; Ciarrochi et al. 200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10문항과 한국복지

패널에서 추가로 사용한 3문항을 포함하여 총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높은 점수는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3문항 중 5문항(9, 10, 11, 12, 13)은 부정문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역코딩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본의 적절성 결과 Kaiser-Meyer-Olkin(KMO) 값이 .89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 확률이  $p < .01$  으로서 나타났다( $\chi^2_{78} = 2814.41$   $p = <.01$ ).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척도는 단위 행렬(identity matrix)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결과 3개 문항(7, 8, 13)은 요부하량이 .40 보다 작아 추후 분석에서 제외 시켰으며 10문항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범주

<표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문항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소중한)사람 이라고 느낀다	.51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72	
3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61	
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66	
5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64	
6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59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8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9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60
10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64
11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82
12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생 각한다		.73
13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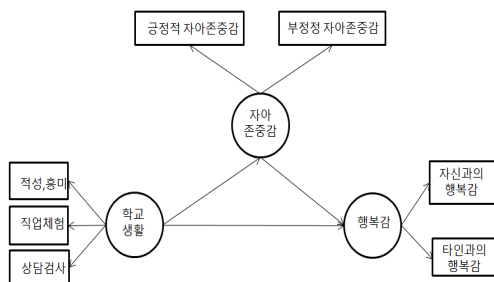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13

화 했으며 각각의 고유값(Eigenvalue)은 1.34, 1.58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청소년의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의 문항 간 신뢰도는 .89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의 문항 간 신뢰도는 .86 그리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문항 간 신뢰도는 .75로 나타났다

### 3. 분석모형 및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내생변수(학교생활)와 외생변수(행복감) 사이에서의 매개변수(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구조적 모형을 구조 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학교생활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IV. 연구결과

### 1.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적 절차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각 변인들의 관계를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정규성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4>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각 변인 Kline(2005)이 제시한 기준(왜도의 절댓값이 3보다 작아야 하며 첨도의 절대 값은 8~10보다 작아야 함)과 Leinard Lomax(2005)가 제시한 보수적인 접근방법(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 기준은 2 또는 3으로 보는 관점)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 사용된 각 변인들이 정규성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는 각 변인들과 그 변인들의 하위영역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5>는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전체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0.16 \leq r \leq 0.20$ .

하지만 학교생활,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모든 영역에 부(-)적 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상관관계 값이 .8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학교생활		20.00	48.00	36.71	3.92	-0.46
	학교생활	6.00	24.00	17.79	2.52	-0.35
	학업스트레스	4.00	16.00	9.98	2.68	-0.18
	학교유대감	4.00	12.00	8.93	1.55	-0.50
행복감		6.00	25.00	18.52	3.92	-0.18
	자신과의 행복감	3.00	15.00	11.02	2.54	-0.29
	타인과의 행복감	2.00	10.00	7.50	1.71	-0.26
자아존중감		10.00	40.00	29.30	4.96	-0.30
	긍정적 자아존중감	6.00	24.00	17.73	3.11	-0.29
	부정적 자아존중감	4.00	16.00	11.57	2.40	-0.26

<표 5> 변수 간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교생활	① 1.00									
학교생활	② .68**	1.00								
학업 스트레스	③ .53**	-.13**	1.00							
학교유대감	④ .50**	.33**	-.16**	1.00						
행복감	⑤ .16**	.40**	-.27**	.22**	1.00					
자신과의 행복감	⑥ .19**	.43**	-.22**	.16**	.92**	1.00				
타인과의 행복감	⑦ .09**	.27**	-.28**	.26**	.86**	.60**	1.00			
자아존중감	⑧ .21**	.44**	-.21**	.20**	.57**	.57**	.43**	1.00		
긍정적 자아존중감	⑨ .21	.45**	-.26**	.24**	.54**	.54**	.42**	.94**	1.00	
부정적 자아존중감	⑩ .18	.34**	-.11**	.08**	.50**	.50**	.38**	.88**	.68**	1.00

\* $p < .05$  \*\* $p < .01$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15

<표 6> 모형적합도 결과

적합지수	적합도 지수	적합기준	결과
$\chi^2(11)$	81.12(p <.01)	p > .05	부적합
CFI	.93	.90	적합
GFI	.95	.90	적합
RMSEA	.09	.10	적합
NFI	.92	.90	적합

## 2. 구조 방정식

<표 6>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NFI)를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CFI, TLI, GFI, NFI는 .90이상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평가한다(Hu and Bentler 1999; MacCallum · Browne and Sugawara 1996).

<표 7>은 학교생활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대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생활 요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모두 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환경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관계가 있고 학교생활 요인과 학교유대감에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교생활 요인이

학교유대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 중 자신과의 행복감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제언

급격히 변화는 사회에 적응하고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외국어습득, 상급학교 진학 등)을 기울이고 있다. 선행연구(강영하 2012)에서 한국 학생들은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개인적 행복감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사회·정서적 요인들에 대한 개별적 연구들은 아주 많았으나 이들 변인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 청소년의 학교생활 요인, 그리고 자아존중감 사이의

<표 7>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직·간접효과 크기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t
			비표준 화 계수	표준 화 계수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 계수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	2.88	.67			6.33**
행복감	←		1.50	.42	1.00	.27	3.75**
긍정적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			2.87	.59	
부정적 자아존중감	←				1.73	-.46	
자신과의 행복감	←	학교생활			2.54	.62	
타인과의 행복감	←				1.40	.52	
학교생활	←	학교생활	2.77	.70			6.71**
학업스트레스	←		-1.27	-.30			-4.70**
학교유대감	←		1.00	.41			
행복감	←	자아존중 감	.35	.42			4.46**
긍정적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 감	1.00	.89			
부정적 자아존중감	←		-.60	-.69			
자신과의 행복		자아존중 감			0.35	.37	
타인과의 행복					0.19	.31	15.40**
자신과의 행복감	←	행복감	1.00	.91			
타인과의 행복감	←		0.56	.76			

\* $p < .05$  \*\* $p < .01$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 )적 관계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이 속한 학교현장의 환경개선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행복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 중에서 자기 스스로의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행복감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yubomirsky(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이 약 50%, 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여부 등)이 약 10%, 그리고 심리적 상태(긍정적 사고, 이타주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법)가 약 40%정도로 나타나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17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대인관계와의 상호작용보다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느끼는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여준 학교생활,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는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교 안에서의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생활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Greene 1990; Chang · McBride-Chang · Stewart and Au 2003). 또한 행복에 대한 정의 영역이 청소년시절에는 가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는 가정을 벗어나 보다 넓은 영역을 포함하여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경향을 추후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형태(Cripps and Zyromski 2009), 부모의 애착 정도(Amato 1994)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의 영향을 포함한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Amato 199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정도가 높으면 자녀의 행복이 증가되고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추후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나쁜 학생이고 높은 학생은 좋은 학생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주 만연되어 있다(Manning · Bear and Minke 2006).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인식(perception)에 관련된 인식의 문제이

다.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람직하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집단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일본)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선행연구(Heine · Lehman · Markus and Kitayama 1999)의 연구를 고려해 볼 때, 집단주의의 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체가 불분명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대한 개념이 새로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표준화된 시험(예, 토익, 토플) 또는 적성검사(예, IQ 검사)에서 가정하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부적분포를 가정한다(Baumeister · Tice and Hutton 1989). 즉 정규분포 틀 안에서 해석한다면 자신들의 자아존중감이 보통이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중간지점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중간정도에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은 구분을 할 때 낮은 자아존중감에 속한 청소년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방법론 쪽으로 부적 또는 정적 분포를 이루는 변수와 정규분포를 이루는 분포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Baumeister et al. 2003)는 선행연구의 결과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서로 다른 결론(긍정 또는 부정)을 제시할 때 말이다(Baumeister et al. 2003). 비록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들 간에 정(+)적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aumeister et al. 2003) 이들 측정도구들 간에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잘 되어 있지 않아 결과를 해석하는데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선행연구(Hansford and Hattie 1982; Twenge and Campbell 2001)에 의하면 낮은 학업 성취도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더욱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학업성취도(국어, 수학, 영어 등)에 관한 생각을 물어본 설문 결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로 접근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좀 더 구조적인 모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강영하. 2012. “행복 연구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 『초등교육연구』 25 (2): 1-21.
- 권세원·송인한. 2011.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 사고 간 관계에서 인지왜곡이 가지는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 (3): 67-92.
- 권세원·이애현·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Adolescent Resilience Model)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 (2): 39-72.
- 김승권·장영식·조흥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춘·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연구』 23: 51-70.
- 도종수. 20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 (4): 21-45.
- 류시영·강방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잼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 (4): 27-50.
- 송경아. 200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 2011. “다층 모형을 적용한 학생 행복의 설명요인 탐색”,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웅·곽윤정. 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8 (7): 59-83.
- 정미영·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pp. 37-54.
- 조은상. 2011. 행복지수와 인재개발 Working Paper 201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복지패널. 2012.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012: User's Guid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Non-Korean References

- Amato, P. R. 1994. "Father-child relations, mother-child relations, and offspr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1031-1042.
- Baumgardner, S. R., and Crothers, M. K. 2009. "Positive psychology." Prentice Hall: Pearson Education, Inc.
- Baumeister, R. F., J. D. Campbell, J. D., Krueger, J. I., and Vohs, K. D. 2003. "Does high self 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1-44.
- Baumeister, R. F., Tice, D. M., and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 547-579.
- Branden, N. 1994. "The six pillars of self-esteem." New York, NY: Bantam Books.
- Ciarrochi, J., Heaven, P. C. L., and F. Davies, F. 2007. "The impact of hope, self-esteem, and attributional style on adolescents' school grades and emotional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161-1178.
- Chang, L., McBride-Chang, C., Stewart, S, M., and Au, E. 2003.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family relations in Chinese adolescents an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182-189.
- Cripps, K., and Zyromski, B. 2009.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rceived parental involvement: Implications for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 schools". *Research in Middle Level Education [Online]* 33 (4): 1-13.
- Csikszentmihalyi, M., and J. Hunter, J. 2003. "Happiness in everyday life: The uses of experience sampl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 185-199.
- Demir, M., Ozdemir, M., and Weitekamp, L. A. 2007. "Looking to happy tomorrows with friends: Best and close friendships as they predict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 243-271.
- DeNeve, K. M., and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Diener, E., and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and M. E.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 DiTommaso, E., and Spiner, B. 1993.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 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27-134.
- Dogan, T., Totan, T., and Sapmaz, F. 2013. "The role of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self-efficacy, and affect balance on happiness: A path model." *European Scientific Journal* 9 (20): 31-42.
- Gray-Little, B., Williams, V. S., and Hancock, T. D. 1997.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the Rosenberge Self-Esteem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3: 443-451.
- Green A. L. 1990. "Pattern of affectivity in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0: 340-356.
- Hansford, B. C., and Hattie, J. A.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achievement/performance measur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 123-142.
- Heine, S. H., D. R. Lehman, D. R., Markus, H. R., and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older, M. D., and Coleman, B. 2007.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lationships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329-349. doi 10.1007/s10902-007-9083-0
- Hu, L., and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44.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ei, m., and Lomax, R. G. 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2 (1): 1-27.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6: 239-249.
- Lyubomirsky, S., and Lepper, H, S. 2006.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happiness and self-esteem?"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 363-404.
- MacCallum, R. C., Browne, M, W., and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 (1): 130-149.
- Manning, M. A., Bear, G, G., and Minke, K, M. 2006.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G. G. Bear and K. Minke (Eds.)," *Children's needs III: Development, prevention, and interventio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Maslow, A. H. 1943.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4): 370-396.
- Matsunaga, M. 2010. "How to factor-analyze your data right: Do's, don'ts, and how-to'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3: 97-110.
- Nangle, D. W., Erdley, C. A., Newman, J. E., Mason, C. A., and Carpenter, E. M. 2003. "Popularity, friendship quantity, and friendship quality: Interactive influences on children's loneli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Reports* 88: 817-824.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Y: McGraw-Hill.
- Park S. H., Park H. R., Jeon S. B., Jeong S. Y., Tserendejid A., Seo J. S., Lee K. H., and Lee Y. K. 2012. "Awareness and practice of dietary action guide for adolescenc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ty* 17 (2): 133-145.
- Procidano, M. E. 1992. "The nat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inding of meta-analytic studies." In C. D. Spielberger and J. N. Butler (Eds.), *Advance in personality assessment*. 1-26. Hillsdale, NJ: Erlbaum.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NY: Basic Books.
- Schultz, B. J., Izard, C. E., and Bear, G. G. 2004. "Emotionality, emoti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371-387.
- Slee, P. T., and Rigby, K. 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3: 273-282.
- Schmitt, M. (1996). "Uses and abuse of coefficient alpha."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50-353.
- Tkach, C., and Lyubomirsky, S. 2006. "How do people pursue happiness?" Relating personality, happiness-increasing strategies, and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183-225.
- Twenge, J. M., and Campbell, W. K. 2001. "Age and birth cohort differences in self-esteem: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Review*. 5: 321-344.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 (2): 204-226.
- Young, R. M. R., and M. T. Bradley, M. T. 1998. "Social withdrawal: Self-efficacy, happiness, and popularity in introverted and extroverted adolescents."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4:  
21-35.

Yu J. H., and Lee Y. S. 2013.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  
based teaching-learning plans and  
evaluation of its effectiveness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focused on the unit 'Youth's self  
management' i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5 (4): 79-98.

Whaley, L. F., and Wong, D. L. 1997.  
"Essential of pediatric nursing, (5th  
ed)." St. Louis: Mosby.

국문참고문헌의 영문표기  
(Korean Reference in Roman Alphabet)

- Cho, Eunsang.. 2011. "Happiness index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pap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Do, Jong-Soo.. 2011. "The effects of youth voluntary service on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Youth Welfare* 13 (4): 21-45.
- Jung, Mi-Young. and Moon, Hyuk-Jun.. 2007.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 (5): 37-54.
- Kang, Young-Ha.. 2012. "Implications of happiness studies to educat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5 (2): 1-21.
- KIHASA 2012.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2: User's Guid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ung-Kwon., Jang, Young-Sik., Cho, Heung-Sik. and Cha, Myeoung-Sook.. 2008. "A study of determinants and indicators of happiness among Korena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Young-Chun. and Jung, Min-Sook.. 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Work* 23: 51-70.
- Kwon, Se-Kwon. and Song, In-Han.. 2011. "Cognitive distortions as a moder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3 (3): 67-92.
- Lee, Hyun-Eung. and Kwak, Yun-Jung..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in the early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 (7): 59-83.
- Kwon, Se-Won., Lee, Ae-Hyun. and Song, In-Han.. 2012. "A study on adolescent happiness: Application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3 (2): 39-72.
- Ryu, Si-Young. and Kang, Bang-Hun.. 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happiness." *Studies on Korean Youth* 23: 27-50.
- Song, Gyoung-Ah.. 2008. "The effects of self esteem,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relationship with schoolmate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